

2) 백낙구 의병

1905년 11월의 을사늑약을 전후하여 의병이 재차 일어났다. 조선인들은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됨으로써 국권을 상실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의병을 일으키려는 움직임이 더욱 활기를 띠었다.

전남지역의 제2차 의병은 최익현(崔益鉉)·李大克(李大克)·백낙구(白樂九)·양한규(梁漢奎)·양회일(梁會一) 등이 주도하였다. 면암 최익현은 호남지역 의병의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1906년 6월, 최익현은 전 낙안군수 임병찬(林炳瓚)과 함께 태인의 무성서원(武城書院)에서 수백 명의 문인들을 모아 의병을 일으켰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유생군(儒生軍)을 이끌고 정읍과 곡성 등지를 돌며 군량과 무기를 모았다. 의병을 일으킨 지 일주일 만에 그는 순창에서 체포되었다. 최익현 의병이 “과거에 응시하러 가는” 유생과 같다는 지적도 있지만, 창의를 호소하는 그의 글은 전남지역 의병의 봉기를 크게 자극하였다. 즉, 백낙구·고광순·이항선(李恒善)·강재천(姜在天)·기우일(奇宇日)·기우만·양회일 등이 각각 광양·창평·구례·장성·곡성·능주 등에서 의병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따라서 최익현의 의병봉기는 호남의 의병기운을 일깨웠을 뿐만 아니라 의병항쟁을 고조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¹⁾ 특히, 백낙구의 의병봉기는 순천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그는 전주의 향리 집안 출신으로 짐작된다.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그는 농민군을 뒤쫓는 초토관(招討官)으로 활동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주사(主事)에 임명되었다. 하지만, 어수선한 국제 정세와 썩어빠진 정치의 난맥상에 실망하고서 곧 사직하고 말았다. 얼마 후 그는 악성 눈병에 걸려 갑자기 시력을 잃었다. 이후, 그는 광양의 백운산(白雲山)에 갇혀 은거하여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이무렵, 그는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였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서 의병에 투신할 것을 결심하였다. 1906년 1월, 그는 기우만이 주도하는 곡성의 도동사(道東祠) 거의에 참여하였으나, 워낙 호응이 적어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전북 태인에서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곧장 태인을 향해 출발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최익현의 패전과 서울 압송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번에도 그는 아쉬운 발길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광양에 돌아온 그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다. 70노구에도 불구하고 의병을 일으킨 최익현에 비하면 자신의 처지가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직접 의병을 일으켜 왜놈을 물리칠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그는 장성의 기우만, 창평의 고광순 등과 연락하며 창의날짜와 장소를 물색하였다. 이들은 의병의 패인이 훈련의 미숙과 무기의 열세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깊은 산중에서 일정기간 훈련을 하기 위해 지리산 골짜기에 위치한 중대사(中大寺)에 모이기로 약속하였다. 이 절은 구례군 토지면에 있었으나,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1906년 10월경, 백낙구는 자신이 은거해오던 광양의 백운산 자락에 사는 사람들을 의병으로 끌어들이었다. 약 200여 명의 의병을 모은 백낙구는 약속한 날짜에 구례의 중대사로 향하였다. 이때가 1906년 11월 5일이었다. 한편, 백낙구의 의병봉기에는 진주의 실직한 군리(郡吏)들이 적극 가담하였다. 백낙구는, 1906년 10월에 단행된 관제개혁으로 쫓겨난 이들을 설득하여 의병대열에 합류하게 하였다. 그런데 연락이 잘못되어 고광순과 기우만이 이끄는 의병부대는 오지 않았다. 이에 광양으로 되돌아간 그는 11월 7일에 광양 군아(郡衙)를 점령하여 무기화군자금을 확보하였다.²⁾

1) 홍영기, 「호남의병 일백년」 35회, 『투등일보』 1995. 6. 21.

2) 「光陽匪擾」, 『태한매일신보』 1906. 11. 14.

이어 순천을 습격할 계획이었으나, 날이 환히 밝아오자 취소하고서 삼삼오오 흩어져 구례의 약속장소에 다시 집결하기로 하였다. 백낙구 역시 이승조(李承祖)·이도순(李道順)·이지상(李芝相)·권창록(權昌祿)·안치명(安致命：致中)·김봉구(金奉九) 6명과 함께 구례를 들이치다가 구례군수 송대진(宋大鎭)에게 체포되고 말았다. 이들은 곧바로 순천분파소(順天分派所)로 압송되었으며, 후일 광주로 이감되어 재판을 받았다. 그 가운데 안치명과 김봉구는 순천에서 탈옥하여 화를 면하였다.³⁾ 나머지 의병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백낙구 의병부대의 주요 구성원은 대체로 지방제도의 개혁에 불만이 많았던 전직 군리들이었던 것 같다. 다음의 인용문이 그러한 사정을 전해준다.

3) 「五賊取招」, 『태한매일신보』 1906. 12. 5 · 1907. 1. 10.

최의 잔당은 끊임없이 민심을 선동 도발하고 있었는데, 동년(1906) 11월 4일 본도의 유생으로서 본디 최익현을 따르는 광양군의 백낙구, 장성군의 기우만, 창평군의 고광순·이항선 등이 관제개혁으로 실직한 전 군리 등과 통모하여 구례군 중대사에 모여 총원 50여 명, 총기 10여 정으로 다음날 5일에 거사, 구례에서 광양군을 통과하여 7일 순천에 이르렀는데... .(『천남폭도사』, 21~22쪽)

백낙구 등이 실직한 관리들을 끌어모아 의병을 일으키려다 실패한 상황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은 진주 출신들이었다.⁴⁾ 이들은 진주에서 폭동을 도모하려다 백낙구와 만나게 되어 의병에 투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순천에서 광주로 압송된 백낙구는 신문을 받았다. 신문과정에서 그는 의병에 투신한 감회를 솔직하게 피력하였다.

슬프다. 오늘날 소위 대한민국(大韓國)은 누구의 대한민국인가. 과거의 을미년에는 일본공사 삼포(三浦)가 수차 마음대로 군대를 풀어 대궐을 점거하니 만국(萬國)이 이를 듣고 실색(失色)하였으며, 팔도가 원수 같이 애통해한 이래 12년이 흘렀다. 위로는 복수의 거의가 없고, 아래로는 수치를 씻는 논의가 없으니 가히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제 이등박문(伊藤博文)이 더욱 모욕을 가하여 군대를 끌고 서울에 들어와 상하를 누멸하고서 자칭 통감이라 한다. 그 통이란 것은 무엇이며 감이란 것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오백 년 종사와 삼천리의 강토와 이천만의 동포가 이웃 나라의 적신(賊臣) 이등(伊藤)에게 빼앗기는 바가 되었다. 입을 다물고 머리를 수그려 분함을 외쳐보지도 못하고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인가. 이에 백낙구는 스스로의 힘을 헤아리지 않고 동지를 불러 모으고 의병을 모집하여 힘껏 일본인 관리를 공격하여 국경 밖으로 내쫓고, 또한 이등박문을 사로잡아 의병장 최익현 등을 돌려받고자 하다가 시운이 불리하여 전투에 나서기도 전에 체포되었으니, 패군장이 감히 살기를 바라겠는가. 이에 사실대로 말하노라.” 하였더라.(『패장구공』, 『대한매일신보』 1906. 12. 7.)

앞을 보지도 못한 장애인이었지만, 백낙구는 오로지 조선의 장래만을 걱정하였다. 그는, 조선이 누구의 나라인데 이등박문이 자칭 통감이라 하며, 삼천리 강산과 이천만 동포를 빼앗아가느냐고 강력히 성토했다. 그는 성리학적 명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제의 침략에 저항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근왕의병보다는 보국의병을 지향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당시 백낙구는 순천에서 활동 중인 일본인들을 먼저 내쫓으려다가 붙잡히고 말았다.⁵⁾ 결국, 그는 15년형을 선고받아 1907년 5월에 완도군 고금도에 유배되었다가 그해 12월 순종의 특사로 풀려났다.⁶⁾

고금도에서 돌아온 그는 전주의 의병들과 합류하여 전북 태인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전투의 형세가 불리해지자, 의병들은 백낙구를 부축하여 포위망을 벗어나려 하였다. 이에 그는 “그대들은 떠나시오. 여기가 바로 내가 죽을 곳시오.”라며, 앞으로 뛰어나갔다. 그가 “백낙구가 여기에 있다.”고 외치는 순간, 일본군의 총에서 불이 뿜었다. 의병장 백낙구는 태인에서 장렬히 전사한 것이다. 이때가 1907년 선달이었다.

백낙구의 활동에 대하여 황현은 『태천야록(梅泉野錄)』에 “백낙구는 두 눈을 실명하여 전투할 때에는 언제나 교자를 타고 일병을 추격하였다. 그리고 패할 때도 교자를 타고 도주하다

4) 『광양비요』, 『대한매일신보』 1906. 11. 14 ; 『광양비요』, 『한세보』 1906. 11. 15.

5) 『구한국관보』 1906. 4. 23.

6) 위의 책, 1907. 5. 6 • 1907. 12. 3.

가 세 번이나 체포되었는데, 결국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고 썼다. 대한제국기의 유일한 맹인 의병장 백낙구가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투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제2차 의병은 성리학적 명분이나 근왕을 지향하였다기보다는 국권수호투쟁, 즉 반침략적(反侵略的)·보국적(保國的)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들은 상소나 시위형태의 활동을 지양하고 무력투쟁으로 선회하였다. 하지만, 아직은 장기항전으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도 있다.

